

사건(가)의 판(가)

‘짱구맨’과 함께 춤을



다른 이에게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돌보이게 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되는 '홍보의 시대'입니다. 영업에도 홍보가 필수입니다. 변화기에 대비한 가게들이 광고를 패러디한 재치있는 문구, 화려한 표지판 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총장님 변화기에는 유난히 시선을 끄는 살아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만화 주인공인 '짱구' 탈인형을 쓴 '짱구맨'은 현란한 춤춤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항상 의자에 앉아있지만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춰 어깨를 들쭉들쭉이며 손목을 허공속에서 휘휘 비트는 모습은 한 두번 춤을 춰본 솜씨가 아닌듯 합니다. 리듬에

맞춰 두 발을 쿵쿵 굴리기도 하며 음악에 도취된 홍보맨의 모습은 얼굴에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장관입니다. '짱구맨'이 버티고 있는 가게 앞을 지나노라면 가끔 '짱구맨'을 따라 율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손에 이끌려 길을 나선 아이들은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짱구'와 함께 춤을 추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볼 때마다 기분 좋은 '짱구맨'. 그런데 요즘은 괜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부쩍 완연해진 봄기운에 곧 더운 여름이 다가올 테니까 말입니다. 탈속에 흐르는 땀방울이 더 굵어지게 생겼습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이형용

필자는 해직교사 시절, 운암동에서 한문학원을 운영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운암동에 있는 중학교에 부임해 옛 제자들의 소식을 자주 듣곤 한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학부모를 통해 자녀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였다. 모두들 원하는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갖게 돼 기뻐했다. 어느 날, 퇴근길 운암동 사거리에서 웬지 낯익은 얼굴의 청년이 지나가면서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네왔다. 가만히 보니 옛날 학원 제자여서 반갑고 그간의 소식도 궁금해 안부를 물었다. "저는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약속을 지켰어요!"라고 답했다. "무슨 약속을 했는데..."라고 다시 물으니 "아니 선생님 나와 한 약속도 잊으셨어요?"라는 답을 돌아왔다. 난감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K군은 "원장선생님께서 저에게 글씨도 잘 쓰고 묵소리도 좋아서 선생님이 되면 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장선생님과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그걸 잊으셨어요?"라며 매우 서운해 했다. K군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초등학교 5학년의 초등학교를 빛나는 반말을,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때도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글자 한 자 더 가르치는 일보다는 의식적으로 아이들을 칭찬하고 꾸짖으면서 아이들의 특기 적성을 찾아주고 나쁜 습관을 고쳐주려고 했다.

약속

늘로부터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나의 특기와 적성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타고난 특기와 적성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도 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우리 교육자는 아이들에게 하늘로부터 타고난 재능과 특기를 살려 주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각각의 꿈과 희망을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과 약속해보자.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거란다. 나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 인생을 설계해 보자. 나의 꿈과 희망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세상의 어떤 거센 파도 앞에서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한 마리 언어가 되어 저 대양에서 푸른 꿈을 실현하고 모천으로 돌아오겠노라'고 우리 한번 약속해 보자." <운암중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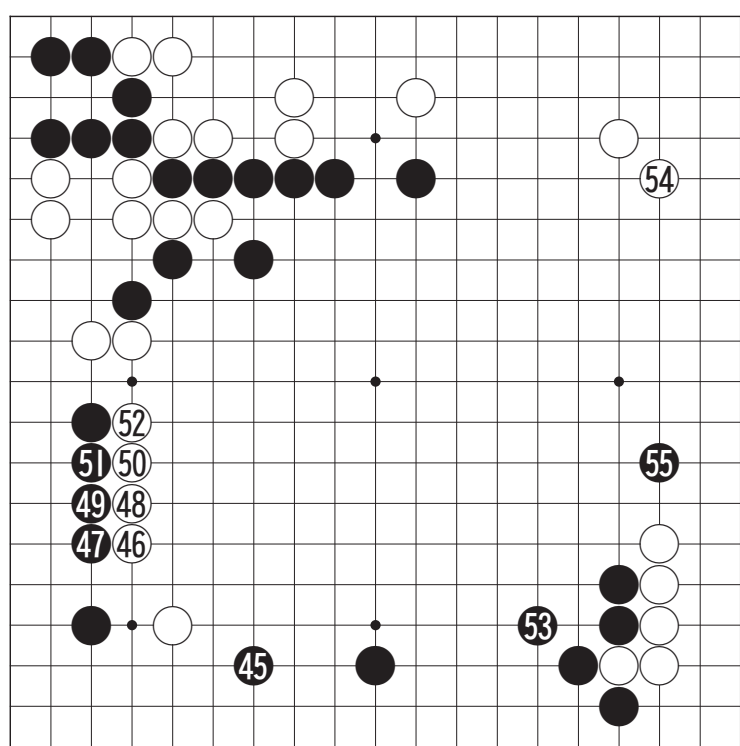
리빙 센스

밀가루 활용

밀가루는 부침종류의 음식을 만들 때 필수 재료입니다. 밀가루는 풀을 주고 설거지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풀 밀가루는 옷에 풀을 먹이거나 김장을 담글 때 양념과 함께 버무리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밀가루를 그냥 물에 넣고 데우면 작은 덩어리가 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리를 이용해 몇 번 걸러 주면서 저어주면 밀가루가 덩어리 지지 않아 쉽게 밀가루 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가루 재활용 요리하고 남은 밀가루는 설거지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수세미에 적당량 묻혀 그릇을 닦아주면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특히 기름때가 많이 묻은 프라이팬 등에 세제처럼 뿌려두었다가 설거지 하면 좋습니다. 그릇에 묻은 김치 자국을 없애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25일(음 2월 18일 甲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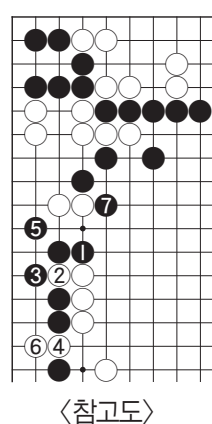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12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of March 25th.



강주바둑협회 연구생 리그전

이상각각 4보(45~55)

白 강지수 (문성중 2) 黑 임지성 5단 (동일전자공고 2)



<참고도>

임지성군과 강지수군은 연구생 리그전에서 많은 대국을 해와 서로를 잘 아는 처지다. 역대전적에서는 임지성군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일 정도로 강지수군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흑 45로 협공한 것은 이렇게 두고 싶은 곳이며 강지수군이 백 46으로 싸워간 것이 좋은 감각이다. 이 수로 선불리 귀에 불난다든가 하는 것은 위쪽의 백 대마와 얽혀 양면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 임지성군은 순한 양처럼 흑 47로 불이고 51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이것이 이상각각으로 백을 편하게 해줬다. 지금은 상하의 흑 세력이 좋으므로 이 결과는 흑의 불만이다. 그러므로 흑 51로는 무조건 '참고도'의 흑 1로 밀어 반발해야 했다. 그러면 흑 7까지의 바뀌치기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흑의 이득이다. 흑 55까지 서로 큰 곳을 차지하며 승고르기를 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LG배 출전 아마팀 4명 선발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에 출전할 아마추어 4명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기원은 24일 "이 대회 아마추어 선발전을 통해 홍석의·이호승 아마 6단, 김현찬·박영운 아마 5단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펼쳐진 선발전에서 김현찬이 우승, 홍석의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제12회 LG배 통합예선에선 김중해 아마 6단이 프로기사에 맞서 예선 결승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으나 어렵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아직 본선 진출에 성공한 아마 기사가 없는 LG배에서 김현찬 등이 얼마 만의 성적을 낼지 관심이 모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A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xercises: English (How did the garage get cleaned up?), Japanese (そんなにしゅんぼりしてどうしたんですか?), Chinese (你的座位在哪里?), and Korean (龍虎相搏(용호상박)). Each column contains a question, a dialogue, and a vocabulary list.